

特別講演

1974. 11. 26

韓國藥史學 研究의 諸問題

서울대生藥研 教授 洪 文 和

(要旨) 원래 醫學과 藥學은 表裏一體이며 醫는 經(날)이 되고 藥은 緯(을)가 되어 韓國醫學史의 體系를 이루는 것이다. 이미 斯學의 元老이신 金斗鍾博士를 비롯한 여러 개척자들에 의하여 韓國醫學史가 體系세워짐에 따라 자연히 藥學史도 그 가운데서 밝혀져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韓國醫學이 歷史的 變遷과정을 통하여 究明되는 가운데 藥學史의 問題點들도 남김없이提起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이와 같은 小論이 새로운 問題提起를 한다는 것은 외람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이미 提示된 問題점들을 要約하여 紹介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問題의 細部的 연구를 如何히 하느냐의 管見을 피력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藥物을 中心으로 하는 物質科學, 技術 또는 藥事制度의 角度에서 藥學史를 補完한다는 것은 이미 定立된 醫學史의 偉業을 繼承發展시키는 뜻에서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藥學史의 補完을 위해서는

- ① 우리나라 固有의 藥物에 對한 考證
- ② 外國으로부터의 傳來藥物의 導入경로와 그와 같은 藥物의 導入이 우리 科學技術에 미친 影響
- ③ 鄉藥獎勵政策을 中心으로 하는 自主藥學의 史實과 評價 및 우리 自主藥學이 他國에 미친 영향
- ④ 人蔘의 栽培 및 修治法의 開發을 비롯한 製藥技術史의 發掘

⑤ 四象醫學의 藥性觀에 의한 體質藥物學에 對한 究明 등이 우선 時急히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얼른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地政學의 位置로 보아 우리 醫學이나 藥學이 大陸의 그것의 단순한 受容과 媒介의 架橋의 役割에 不過했으리라고 速斷하기 쉬우나 史實은 이와는 반대로 批判과 變形 내지는 獨創에

의한 獨自의인 體系라고 함은 自他가 共히 認定하여 「韓國醫學」이라는 名稱이 이미 外國학자에 의하여 附與되고 있다는 事實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이와 같은 뜻에서 「韓藥學」의 面貌를 浮刻시킨다는 것이 學史學에 뜻을 둔 모든 사람의 使命이 아닐까 한다. 이들 問題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問題의 所在를 論하면,

1. 우리나라 固有藥物

우리나라의 藥物이 오로지 漢方 本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獨自의로 開發한 것, 즉 固有藥物이 있었음이 檀君神話에서 當時 神農本草經에도 記載가 없는 艾와 蒜에 對한 記述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三國遺事: 卷第1) 三國時代의 人蔘을 비롯한 우리나라 特產의 藥材에 關한 記錄을 中國의 本草文獻에서 찾을 수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陶弘景의 本草經集註에 나오는 「生金辟惡而有毒, 不鍊服之殺人, (中略) 高麗・扶南及西域外國成器, 皆鍊熟可服…」云云은 우리나라 古代의 金精鍊法의 優秀性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藥物學의 獨自性의 一端을 엿볼 수 있는 資料인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2. 鄉藥獎勵政策을 中心으로 하는 自主藥學의 史實과 評價 및 우리 自主藥學이 他國에 미친 影響

金斗鍾의 「韓國醫學史」에 의하면 鄉藥이란 말은 제나라에서 나는 藥材를 가리킨 것인데 中國에서 수입되는 藥을 唐藥이라고 부르는데 대한 제나라 藥의 稱칭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高麗中期 後半期에 鄉藥救急方이 간행되면서부터 널리 알려진 것인데 그후 高麗末頃에 이르러서는 그 지식이 擴充되어 수종의 鄉藥方書들을 보게 되었으며 近世朝鮮의 전국 후에도 鄉藥의 栽培과 이용에 관한 권장의 方法을 계속하였다.

이와같은 史實은 우리나라가 高麗中期로부터 종래의 唐材依存으로부터 벗어나 자국산의 藥재로써 자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로의 자주성 확립을 醫療政策으로 삼았던 증거이며 자랑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은 鄉藥의 자립을 위하여

- 1) 鄉藥方書의 刊行
- 2) 鄉藥의 管見을 위한 전문가의 국외파견
- 3) 鄉藥分布의 실태조사
- 4) 鄉藥材의 種養 및 재배의 권장
- 5) 鄉藥의 재배 및 채취 등에 關한 指導
- 6) 鄉藥과 唐材와의 藥効對照試驗 등을 實施한 當時의 政府의 醫療政策은 지금이라도 나무랄 處 없는 適切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表 일본의 本草書에 인용된 우리나라 吏讀鄕藥名 중 誤記된 예(식물)

No.	우리나라 原典	일본 본초서	기원 식물(예)
1	京三稜: 牛天月乙(소하늘타리)[集]	荊三稜: 牛夫月乙[啓] 牛天月乙[和]	<i>Scirpus maritimus</i>
2	酸漿: 叱科阿里(파아리)[集]	叱利阿里[啓]	<i>Physalis francheti</i> var. <i>bunyardii</i>
3	地膚: 唐楸(담싸리)[集]	唐○[啓]	<i>Kochia scoparia</i>
4	苦瓠: 苦瓢(쓴박)[集]	苦瓢[啓]	<i>Lagenaria siceraria</i> var. <i>depressa</i>
5	海松子: 佐叱(자)[集]	位叱[啓]	<i>Pinus koraiensis</i>
6	苦苣: 愁伊禾(식화)[集]	苦菜: 愁伊木[啓]	
7	商陸: 這里君(자리궁)[集]	這里居[啓]	<i>Phytolace esculenta</i>
8	龍葵: 加个曹而(가마종이)[集]	加个曹而[啓]	<i>Solanum nigrum</i>
9	前胡: 蛇馬菜(사양채)[集]	蜘蛛菜[啓][和]	<i>Anthriscus silvestris</i>
10	菖蒲: 松衣个(소리마)[集]	松衣个[啓]	<i>Acorus calamus</i> var. <i>angustatus</i>
11	芡實: 末栗實(말음알매)[月]	末栗實[啓]	<i>Trapa bispinosa</i>
12	山慈姑: 馬無乙串(말무엇)[集]	無乙串[啓]	<i>Tulipa edulis</i>
13	藜蘆: 朴草(박새)[集]	朴草[啓]	<i>Veratrum album</i> var. <i>glandiflorum</i>
14	小薊: 曹方居塞(조방거새)[集]	조방거새 外에 羅邑居塞 (남가새)도 併記하고 있 나 이는 瘼○와 혼동	<i>Cephalonoplos segetum</i>
15	蒼耳: 吐叱古个里(독고마리)[集]	吐叱古个里[和]	<i>Xanthium japonicum</i>
16	秦皮: 苦襄木(訓)	苦襄木[和]	<i>Frazinus rhynchylla</i>
17	天麻: 都羅本(도라본)[集]	都羅木[和]	<i>Gastrodia elata</i>
18	亭蘆: 豆乙音羅耳(두름의나이)	豆乙音羅伴[和] 乙音矣羅耳[和]	<i>Lepidium apetalum</i>
19	蛇牀子: 蛇音置良只(뱀두랏)[救] 蛇都羅叱 (뱀도랏)[集] 蛇道乙羅叱(뱀도랏)[村]	蛇音讎良只[和] 蛇都羅比[和] 蛇道乙羅比[和]	<i>Torilis japonica</i>
20	菖蒲: 松衣叱[集]	松衣介[和]	No. 10 참조
21	白及: 竹葉膠(대암풀)[集]	竹葉膠[和]	<i>Blettia striata</i>
22	藜蘆: 朴鳥伊[月](박새)	朴鳥伊[和]	No. 13 참조
23	蓖麻子: 阿次叱加伊[月](아작가리)	阿次比加伊[和]	<i>Ricinus communis</i>

略號: [集]: 鄕藥集成方, [月]: 鄕藥採取月令,
[訓]: 訓蒙字會, [啓]: 本草綱目啓蒙,

[村]: 救家救急方, [救]: 鄕藥救急方,
[和]: 和漢藥考

刊行된 鄕藥方書로는 前記한 鄕藥救急方을 비롯하여 三和子鄕藥方, 鄕藥古方, 鄕藥惠民方 및 近世 世宗朝의 鄕藥採取月令, 鄕藥集成方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은 鄕藥方書들은 鄕藥의 鑑別과 普及을 위하여 鄕藥救急方에서부터 우리나라 固有名인 鄕名을 漢藥名에 併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本草學이 主體性確立의 시초라고 보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鄕藥救急方 出刊 당시에는 아직 한글이 創制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鄕名을 漢字를 사용하여 吏讀로 표현하였으며 이와같은 吏讀鄕名의 연구는 당시의 본초명의 구명 및 吏讀式 漢字 사용법을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

가 되고 있다.

그후 訓民正音의 創制頒布와 더불어 각종 醫方書의 諺譯이 간행되고 東醫寶鑑, 濟衆新編 등 漢文醫方書에도 한글로 된 鄕藥名이 併記되게 된 것은 자주적인 의학의 발전과 의료의 보급을 위한 또하나의 획기적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우리의 醫方書가 일본에도 轉出되어 일본의 의학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음은 일본의 本草書에 우리의 吏讀鄕藥名까지도 인용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本草學이 日本의 本草學 發展의 기초가 되었으며 심지어 吏頭鄕藥名까지도 忠實히 引用하던 나머지 誤記된 채로 현재까지 내려온 자취를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은 우리의 自主의 本草學이 李朝 中葉의 事大主義의 醫藥政策에 의하여 開花되지 못한 채 衰退하였음은 유감스럽다.

世宗地理志의 業績

世宗實錄 148卷~155卷

端宗 2年(1454)에 完成

世宗地理志收錄 生藥數

總數 303種

種養藥材 44種 { 植物性 生藥……243
動物性 生藥…… 46
礦物性 生藥…… 14

(1)世宗地理志에 收錄된 生藥資源 目錄(植物性에 限함)

葛根(葛花), 甘菊花(黃菊), 柑子(乳柑), 甘苔, 芥子, 乾姜(薑), 芡仁(鷄頭實), 牽牛子, 決明子, 京三稜, 鷄冠花, 鷄蘇(水蘇), 藁本, 苦蔘, 昆布, 薑, 薑香, 貫衆, 括婁(天花粉), 槐花(槐實, 槐角), 枸杞子(地骨皮), 瞿麥, 葦子(葦子), 卷柏, 葵子, 金燈花, 金銀花(忍冬), 桔梗, 蘿麻, 絡石, 蘭香, 狼牙, 蘆根, 漏蘆, 漏草, 麥仁, 茶梅, 當歸(辛甘草), 棠梨, 大戟, 大豆(豆豉, 豆花, 黑豆), 大麥, 大薊, 大黃, 桃仁(桃棗), 獨活根, 獨活, 冬草, 杜冲, 蒼心, 馬兜零, 馬蘭花, 麻花(麻子), 蔓菁子, 馬齒莧, 蔓荊子, 麥門冬, 茅香, 木瓜, 牡丹皮, 木賊, 木香(青木香), 木黑, 蕪荑, 獼猴桃, 薄荷, 半夏, 防己(木防己), 防風, 放杖草(三枝九葉草), 藜蘆, 茯苓(茯神), 覆盆子, 白欬, 白膠香, 白芨, 白檀香, 白頭翁, 白附子, 白鮮皮, 栢子仁, 白芷, 栢胎, 白朮, 百合, 白蔞, 萆薢子, 樞子, 萆薢(草薢), 射干, 沙蔘, 蛇床子, 蒴藋, 山蔘(人蔘), 山茱萸, 山藥(薯蕷), 酸醬, 酸素仁, 殺男草, 桑寄生, 橡實, 商陸, 生薑, 生地黃, 徐長卿, 石斛, 石榴, 石薺, 石菖蒲(菖蒲), 細辛, 旋覆花, 小薊, 續斷, 續隨子(蜀隨子), 松脂(松脂, 松子仁, 松花), 水萍, 升麻, 柿蒂, 柴胡, 神麴, 牙子, 惡實(鼠黏子), 安息香, 野生景天, 野葱, 洋蹄根, 蓼荷, 艾葉(獅子足艾), 瞿麥, 藺蒿, 藜蘆, 藺茹, 蓮實(蓮子, 蓮花藥, 蓮房, 蓮葉), 苓陵香, 五加皮, 烏頭(草烏頭), 烏梅(鹽梅, 白梅), 五味子, 五倍子, 吳茱萸, 龍膽, 王不移行, 蕪荑仁, 牛膝, 郁李仁, 鬱金(深黃), 遠志, 蕪靈仙, 榆白皮(榆皮), 柚子(山柚子), 丁香, 薺苳, 藟, 卑英(卑角刺), 卑休, 蛋休, 竹瀝(竹茹, 淡竹葉), 枳殼(枳實), 知母, 地榆, 眞瓜蒂, 秦朮, 陳皮(橘, 苓庭橘, 青皮), 檫皮(實, 子), 蕪藜(蕪藜子), 車前子, 蒼耳, 蒼朮, 芎藭, 天南星, 川練子, 天麻(赤蔞), 天門冬, 天仙子, 天圓子

川椒(椒實, 椒目), 茜草根, 躑躅, 青蒿(草蒿), 青黛(藍), 蜀有子, 側柏葉, 漆(乾漆), 梔子, 土瓜, 土藤廬子, 兎絲子, 澤蘭, 澤瀉, 澤漆, 破古紙, 芭蕉, 扁豆(黑白), 蕭蓄(百節), 蒲黃, 華澄茄, 何首烏, 鷄虱, 海東皮, 海藻(海帶), 杏仁, 香附子, 香薷, 玄蔘, 玄胡索, 荊芳, 胡桃(唐楸子, 楸子), 胡蘆, 虎杖根, 胡菜, 紅花, 樺皮, 黃蔘, 黃香, 黃蘗皮(蘗皮), 黃精, 厚朴, 茴香(八角, 舶上茴香), 稀莖, 栗楔(黃栗), 律草, 益母草, 益實草, 茵陳, 林下夫人, 紫檀香, 紫蘇, 紫莞, 紫莞(紫莞根), 紫子, 紫草(芝草), 雀舌茶, 芍藥(赤·白), 楮實(楮葉), 苧葉, 赤小豆, 前胡, 苧蔴(甜苧蔴), 丁粉, 柳庚秀 等, 「수출생약의 자원조사연구」(科技處 用役研究) 197種의 藥材收錄世宗地理志에 收載된 藥材를 產地, 產出有無 등 견지에서 현재의 상황과 比較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을 例擧하건,

a. 우리나라에서 生育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品種 華澄茄 Piper cubeb L.

白膠香 Pistacia lentiscus L.

蕪陵香 Trigonella foenum graecum L., Coumaro-
una odorata AUBL.

破古紙 Psoralea corylifolia L.

安息香 Styrax 屬 식물의 樹脂

等等

b. 產地가 現在보다 廣範한 것

白芨, 麝香, 鹿茸, 山蔘, 芡仁, 薑香, 槐花, 杜冲, 麥門冬, 白欬, 白附子, 樞子, 山茱萸遠志, 吳茱萸, 丁香, 天仙子, 何首烏, 八角茴香 等

이중에는 現在 輸入하고 있는 生藥도 많이 있음.

鄉藥과 唐材와의 比較

1. 世宗 5年 癸卯 3月: 金乙玄, 盧重禮, 朴寅을 明에 파견하여 62종의 藥材를 鑑定하였음.

그 중 鄉藥이 唐材와 다르다고 결정된 것은 丹蔘, 漏蘆, 紫胡, 防己, 木通, 紫莞, 藏靈仙, 白欬, 厚朴, 芎藭, 通草, 藁本, 獨活, 京三稜

2. 同 12年 庚戌 盧重禮, 明

可用 10종, 不明 10종 결정

3. 同 13年 辛亥

明의 太醫 張本立이 來朝하여 比較토론